

## “여성 건강은 곧 가정과 사회의 행복”

건협 대전·충남지부에서 자궁암을 조기발견, 치료한 여성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는 말만큼 당연히 지켜져야 하면서도 쉽게 지키기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건강이란게 그렇다. 좀 이상하다 싶어도 그냥 낫겠지 하기 십상이고, 확실한 증상이 있어 아차 싶을 때에야 병원엘 가게 된다. 여자들의 경우는 좀 더하다. 가정에서 살림만 하다보니 건강검진은 커녕 6개월에 한번씩은 해야 한다는 자궁암 검진을 받는 일조차 쉽지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여성암, 특히 자궁암은 웬만해서는 증상이 전혀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자궁암 검진을 받고 유소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처음으로 검진을 받았고 발견 전에 증상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여성 건강은 가정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지키기 힘들지만 건강할 때 꼭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4년 대전·충남지부에서 자궁암 검진을 받고 수술 후 건강을 되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건강을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건협 대전·충남지부는  
자궁암 유소견자에게,  
자궁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검사를 받는 날부터  
수술 후  
건강을 되찾기까지  
천절하게 건강을  
체크해 주고 있다.

### ● 건협 대전·충남지부 직원 권유로 자궁암 검사

이송자씨(55세,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협 대전·충남지부 직원의 권유로 지난 해 5월 자궁암 검진을 받았다. 지부 검진버스가 마침 옆 동네 영세민 APT에 주민 무료 검진을 나와 있었던 것.

『얼마 후 연락이 왔는데 자궁암이래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72년 자궁외 임신이 되어 수술을 받은 후론 병원 문 앞에도 가본 적이 없을 만큼 건강했거든요.』 이송자씨의 얘기다.

이씨는 그래도 혹시 하는 생각에서 지부를 찾아가 재검을 받았다. 여기에서 자궁암을 확진한 강군옥 지부의원장의 강력한 권유로 병원을 찾은 이송자씨는 그후 12월에 수술을 받고 이제는 건강을 되찾았다.

### ● 건강을 되찾기까지 관심갖고 도와준 건협에 감사

『자궁암 초기라고는 하지만, 저희로써야 ‘암’이라면 모두 죽는 줄로만 알고 있었지요. 이제껏 고생만 했는데 살만하니 죽는가보다 하는 기막힌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의 강군옥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었어요.』

이송자씨는 암담한 심정이었던 자신에게, 자궁암은 조기에 발



이송자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건강은 정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견하면 수술로써 완치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수술 후 건강을 되찾은 지금까지도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건강을 체크해주는 건협 대전·충남지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는 말을 몇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녀는 또, 「건강은 정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생각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 직원 검진서 자궁암 발견

한편, 김미선씨(직장인, 본인의 뜻에 따라 가명 사용)의 경우는 '94년 5월 직원 건강검진에서 자궁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바쁜 직장생활에 쫓기던 김씨는 재검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건협 대전·충남지부의 장군옥 원장의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김씨의 대답을 들은 강원장은 꼭 재검을 받도록 당부를 했고 결국 그녀는 10월에 조직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자궁암 초기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마침내 12월에 수술을 했다.

「저는 원래 몸이 약했습니다. 소과수술을 4번이나 한 경험이 있고 그 때문인지 질 분비물도 있었구요. 그래서 병원도 남들보다는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자궁암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건강이란 정말  
그렇다.  
아프고 난 후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김씨는, 『건협 대전·충남지부와 강군옥 원장님께서 생명의 은인입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수시로 전화도 하시고 얘기도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라고 덧붙인다.

### ● 증상없이 악화되는 자궁암, 검사 꼭 받아야 한다.

김미선씨는, 자신이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주위에 자궁암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 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동료 한사람도 자궁암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경험을 하고 보니 아픈 표시가 전혀 안나는 부인암 검사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도 정기 검사를 꼭 받도록 권유하고 있어요. 건강해야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가정도 편안한 것 아니겠어요?』라고 말하는 김씨는, 직장인의 점진에 암 검사 등도 필수적인 항목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건강이란 것이 정말 그렇다. 건강할 때 지키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아프고 난 후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 ㉞